

구니토모 총포 뮤지엄

구니토모 총포 뮤지엄은 화승총 전문 박물관입니다. 나가하마의 구니토모는 일본 최초의 총기 제조 중심지 중 하나이며, 오다 노부나가, 도요토미 히데요시,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시대의 패자에게 보호를 받으며, 일본 최대의 총포 공업지로 번성했습니다. 관내에는 약 50 점의 낡은 총포가 전시되어 있으며, 그 대부분은 에도 시대(1603~1867) 후기에 제조된 것입니다. 전시된 컬렉션은 전장에서 사용된 실용적인 머스킷 총부터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예술 작품까지 다양합니다.

총포는 16 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곧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. 현재 나가하마시의 일부가 된 구니토모는 총포 대장간 마을로서의 평판을 일찍이 확립했습니다. 17 세기까지 최고 전성기에는 70 여 곳의 대장간과 500 명 이상의 장인들이 구니토모에 살면서 200년에 걸쳐 에도 막부에 무기를 계속 공급했습니다.

박물관의 일부에는 ‘에도 시대의 다빈치’로도 불리는 대장장이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구니토모 잇칸사이(1778~1840)의 일생과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잇칸사이의 일은 총기뿐만 아니라 투영경, 태양과 달의 표면 관측에 사용했던 일본 최초의 반사식 망원경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. 잇칸사이가 그린 천체 그림과 발명도 몇 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